

백제 사비기토기에 대한 일고찰
(百濟 泗泚期土器에 대한 一考察)
-부소산성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扶蘇山城 出土 土器를 중심으로-

金 容 民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목 차

- | | |
|--------------|--------------------|
| I. 머리 말 | III. 백제 사비기 토기의 성격 |
| II. 토기자료의 검토 | IV. 맺 는 말 |

I. 머리 말

백제토기(百濟土器)는 제작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 제작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이 낙랑(樂浪)을 통한 중국 한대(漢代)의 제도기술(製陶技術)을 발전시킨 토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백제토기는 백제가 존속하던 시기와 지역의 범주로서 규정될 수도 있는데, 본격적인 백제토기의 등장은 원삼국기(原三國期)를 거쳐 기원후 3세기 중후반경인 고이왕대(古爾王代)에 백제가 본격적인 고대국가로 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때부터 등장하는 대형무덤과 성곽 등의 유적에서는 앞선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토기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본격적인 백제토기로 볼 수 있다. 이후 백제토기는 백제의 시기적 변천과 영역의 변천과정에 따라 그 내용과 공간적인 분포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백제의 영역 확대과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¹⁾ 따라서 백제토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백제 도읍의 변천에 따른 영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백제토기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경향은 '8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광복 이후 '70년대까지는 백제토기 전반을 다룬 종합적 측면에서의 연구²⁾가 진행되었던 반면 '80년대 이후로는 각 지역별 발굴 조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1) 국립중앙박물관, 1997, 『한국고대의 토기』, pp.18~20.

2) 藤澤一夫, 1955, 「百濟の土器, 陶器」, 『世界陶磁全集』 13輯, 河出書房

분석 및 그에 따른 지역단위 토기의 편년수립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80년대에 들어서서 한강유역의 석촌동고분군(石村洞古墳群)과 몽촌토성(夢村土城) 등 초기 백제유적에 대한 일련의 고고학적 조사에서 다량의 백제토기자료가 출토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한강 하류지역으로 대표되는 한성백제시대(漢城百濟時代)의 백제토기 양상과 그 성격 및 세부편년안이 제시된 것을 들 수 있다.³⁾

부소산성(扶蘇山城)은 백제(百濟) 사비도읍기(泗沘都邑期)(538년~660년)의 중심성(中心城)으로서 그동안 백제 후기의 역사와 문화내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유적이다. 부소산성은 백제 사비도성(泗沘都城)의 중심부를 이루는 유적이며, 지금까지의 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부소산성의 남쪽 기슭인 부여(扶餘) 관북리(官北里) 일대(一帶)에 궁궐(宮闕)과 관부(官府)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그동안 부소산성에 대한 연구는 문헌과 산성의 유형, 축조방법, 도성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어 왔으나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출토토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후기의 토기상을 파악하려는 예비적 시도로서 준비되었다. 즉,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토기자료를 중심으로 백제후기에 나타나는 몇가지 특징적인 기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백제 후기의 토기양상과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사비기라는 용어는 편의상 백제의 도읍시기를 기준으로하여 백제후기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며 시기적으로는 6~7세기에 해당한다.

II. 토기자료(土器資料)의 검토(檢討)

부소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서록폐사지조사가 처음 실시된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서 서록폐사지조사, 군창터조사, 남문지 및 주변조사, 광장부근와적 기단 건물지 조사, 동문지 및 주변부 조사, 군창터 주변 테피식 산성조사, 사비루 주변 테피식산성 조사 등 주로 산성내 평탄부 건물지와 문지, 성벽조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⁵⁾

이러한 일련의 발굴조사 결과 부소산성은 크게 세 번의 시기에 걸쳐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⁶⁾ 즉, 부소산성의 초축(初築)은 백제 사비천도 이전에 부소산 중턱부분의 전체 외곽을 두르는 포곡형(包谷形)의 산성이 완성된 것이며, 두번째 시기는 백제 멸망 이후 통일 신라시대에 앞선 포곡식산성의 안쪽으로 사비루와 군창터가 있는 두 정상부를 각

小田富士雄, 1979, 「百濟土器」, 『世界陶磁全集』 17輯, 小學館.

安承周, 1979, 「百濟土器의 研究」, 『百濟文化』 12輯.

3) 林永珍, 1987, 石村洞一帶 積石塚系와 土壙墓系墓制의 性格,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I』 考古學篇, 一志社.

朴淳發, 1989, 『漢江流域 百濟土器의 變遷과 夢村土城의 性格에 對한 一考察』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尹武炳, 1994, 百濟王都泗沘城研究, 『學術院論文輯』 人文社會科學篇 第33집.

5) 扶餘文化財研究所, 1995, 『扶蘇山城發掘調査中間報告』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7, 『扶蘇山城發掘調査中間報告Ⅱ』

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앞책.

拙稿, 1997, 扶蘇山城의 城壁築造技法 및 變遷에 對한 考察, 『韓國上古史學報』 第26호.

각 둘러싼 테피식의 산성이 축조된 시기이고, 세번째 시기는 고려말 조선초 경에 군창 터만을 다시 동·서로 나누어 동편을 에워싸는 토루를 축조한 시기로서, 이러한 각 시기에 걸친 유물들이 성내·외부에서 확인 되었다.

지금까지 부소산성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토기는 주로 백제후기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다종다양한데, 주요 기종으로는 삼족토기(三足土器), 개배(蓋杯), 대부발(臺付鉢), 등잔(燈盞), 접시, 전달린 토기, 자배기, 시루, 호(壺)(직구호·광견외반구연단경호·파수부단경호 등), 웅(직구웅·외반단경웅 등), 병(瓶)(단경병·사이부병 등), 기대(器臺), 도연(陶硯) 등이 있고 이외에 보주모양토기, 주구토기(注口土器)(호자(虎子)), 뚜껑류, 그리고 통일신라시대토기인 인화문토기류, 경부 파상문 장경호, 덧띠·주름무늬병, 편병류, 광견장경병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백제토기 중에서도 백제전기부터 나타나는 기종인 삼족토기, 개배, 완, 시루, 호, 웅, 기대류를 제외한 대부발, 접시, 전달린토기와 보주모양토기의 존재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들 일련의 기종들은 백제후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소산성에서 출토되는 토기류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는 동문지주변 발굴보고에서 일차 이루어진 바 있다.⁷⁾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백제 사비기에 출현했다고 생각되는 특징적인 토기양상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특징적인 기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백제후기 토기의 성격과 양상의 일단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대부발(臺付鉢)(도면1)

이 토기는 굽이 있는 사발형태의 토기로서 대부완(臺付盥)이라고도 하며 기형(器形)은 요즈음의 밥그릇과 유사하다. 크기는 대개 10~20cm 내외이며, 높이는 7~10cm 정도이다. 부여(扶餘) 동남리유적(東南里遺蹟)⁸⁾에서는 구경 39cm에 달하는 대형의 대부발(臺付鉢)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 토기의 뚜껑은 반구형(半球形)의 모습에 상부에 보주(寶珠)모양 손잡이가 부착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이 경우 한 세트가 되어 합(盒)으로 불리운다. 대부발은 부소산성 동문지 지역의 경우 전체 토기량 중 점유비율이 6.6%를 차지하는 주요기종의 하나이다.⁹⁾

이 토기는 정선된 점토를 써서 물레성형한 후 고화도로 소성한 것으로서 대부분 경질이다. 색조는 회백색을 띠는 예가 많으며 회청색도 있다.

이 기종의 출토지를 보면 공산성(公山城) 통일신라 12각 건물지의 교란층과 광복루앞 광장 교란층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¹⁰⁾, 주로 부여·익산지방의 백제후기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부여(扶餘) 관북리(官北里)일대 추정 왕궁지 발굴조사에서는 배수로에서 접시, 전달린 토기류와 함께 다량 출토되었고¹¹⁾ 이외에 최근 금동향로가 출토된 부여(扶餘) 능산리 폐사지(陵山里廢寺址)¹²⁾와 익산(益山) 왕궁리(王宮里)¹³⁾, 부여(扶餘) 신암리(莘巖

7) 부여문화재연구소, 1995, 앞책

8) 忠南大博物館, 1993.6, 東南里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9) 부여문화재연구소, 1995, 앞책 P.124

10) 안승주·이남석, 1992.7, 『공산성건물지』 공주대박물관·충청남도

11) 윤무병, 1985, 『부여관북리백제유적 발굴보고 I』 충남대박물관·충청남도

충남대박물관, 1992, 『발굴유물특별전』 pp.19~25.

12) 신광섭 외, 1993.12, 부여능산리건물지발굴조사개보, 『고고학지』 제5집

里)¹⁴), 동남리유적(東南里遺蹟)¹⁵), 궁남지(宮南池)¹⁶), 능산리고분(陵山里古墳)¹⁷)의 봉토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토기의 형태상 특징으로 몸체 하단부에 굽과 만나는 부분에는 폭 1~2mm 정도의 좁은 홈이 둘러져 있는 예가 많은데, 이는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저부와 몸체가 만나는 부분에 굽을 부착한 후 몸체와의 경계를 그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연부 바깥쪽에는 수직으로 내려 그은 도흔(刀痕)이 남아있는 예가 많은데 이는 성형시에 의도적으로 그은 것이며, 이 기종과 결합되는 별도의 뚜껑과 동시에 표시되도록 하여 서로 한 세트임을 표시한 것이다. 즉, 반구형의 뚜껑 가운데는 역시 이러한 수직도흔이 그려진 예가 많아 방증자료가 되며, 화장(火葬)용기인 부여 신암리출토 합(盒)에는 뚜껑과 몸체에 걸쳐 수직도흔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합(盒)으로 사용된 경우 뚜껑을 덮었을 때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로 보아 그 제작방법은 먼저 뚜껑과 몸체를 동시에 구형(球形)이 되도록 성형한 후, 그 중간부분을 물레를 돌리면서 횡으로 절단하여 각각 뚜껑과 몸체로 분리한 후 물손질 성형하여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여 관북리유적에서는 규격이 동일한 대부발(臺付鉢) 기종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의 대량제작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미리 만들어진 반구형(半球形)의 성형틀을 물레 위에 고정시켜놓고, 그 바깥면에 준비된 동일규격의 점토판을 붙여 박자(拍子)같은 타날구로 두드려 기벽을 다진 다음 다시 물레를 이용하여 물손질 성형한 후, 전술한 방법으로 뚜껑과 몸체를 분리시켜, 각각 뚜껑에는 보주모양 손잡이를, 몸체바닥에는 저부와 굽을 부착하여 완성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합(盒)으로 사용된 외에도 단순하고 실용적 형태의 기형과 분포, 출토상황 등으로 볼 때 이 기종은 백제 후기에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생활용기로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또한 이 기종은 화장용기로 사용된 경우 불교보급과 관련하여 백제 후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¹⁹⁾

이 기종의 기원 또는 계통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태상 완류기종에 속하는 것이지만 한강유역의 백제 전기 토기인 몽촌유형(夢村類型)에서 보이는 완류와는 제작방법이나 형태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즉, 대부발(臺付鉢)의 구연부는 예외 없이 직립구연이거나 약간 안쪽으로 내반되고, 바닥은 굽이 달린 평저인데 반하여 몽촌유형의 완은 주로 외반구연으로서,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까워 부여지방의 그것과는 계통상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형태는 고구려(高句麗) 토기(土器)인 구의동류형(九宜洞類型)²⁰⁾에 속하는 평저의 완이 변화되어 굽이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구의동 유형의 기종 중에는 부여지방의 특징적인 굽달린 소형기

13) 부여문화재연구소, 1995, 『왕궁리유적발굴중간보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왕궁리유적발굴조사중간보고II』

14) 강인구, 1977, 『백제고분연구』 일지사, pp.105~138.

15) 충남대박물관, 1993.6 앞글

16) 신광섭 외, 1993.12, 부여궁남지 제2·3차발굴조사개보, 『고고학지』 제5집

최맹식·김용민, 1995.12 부여궁남지내부발굴조사개보, 『한국상고사학보』 제20집

17) 朝鮮古蹟研究會, 『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 pp.133~136.

18) 윤무병, 1994. 앞글 pp.122~124.

19) 강인구, 1977, 앞책

20) 박순발, 1989, 앞글

종과 일맥상통하는 몇가지 기종이 관찰된다. 실제로 구의동출토 토기종에는 들린 굽은 아니지만 굽의형태를 갖춘 완이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²¹⁾

또한 뚜껑을 갖춘 합 의 경우는 고구려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합에서 경주 호우총 등 신라고분에서 반출되는 청동합으로 이어지며, 백제·신라지역의 토기합은 이러한 청동합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²²⁾

이 기종의 출현시기는 백제(百濟) 사비기(泗泚期) 이후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백제(百濟) 한성기(漢城期)에는 이러한 기종이 없고, 웅진기(熊津期)에 속하는 공산성(公山城)에서는 교란층에서 소량 확인된 예가 있으나 이것은 후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며, 공주지방 고분자료나 최근 웅진기 토기(기종)가 반출된 공주정지산유적(公州艇止山遺蹟)²³⁾에서 보이는 기종 구성은 기본적으로 한성기의 기종 구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종은 백제 사비기 6세기 후반 이후에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전달린토기(도면2)

이 기종은 굽이 달린 발형(鉢形)의 몸체에 어깨에 전(頸)이 부착된 것으로서 전이 둘러진 형태는 전체적으로 등글게 먼저 둘러진 후 양 측면을 서로 평행이 되도록 횡으로 절단하여 마치 쇠슬모양의 양 손잡이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처리하였다. 이 기종은 점토를 정선하여 고화도로 소성한 것으로서 외형상 몸체에 전이 달려있는 것을 제외하면 태토나 제작기법, 기형 등에서 전술한 대부발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종의 색조는 대부분 회백색을 띤다.

이러한 전달린토기의 출토지로는 익산(益山) 왕궁리유적(王宮里遺蹟)²⁴⁾과 오금산성(五金山城)²⁵⁾, 부여(扶餘) 부소산성(扶蘇山城)²⁶⁾, 관북리유적(官北里遺蹟)²⁷⁾, 부여(扶餘) 능산리폐사지(陵山里廢寺址)²⁸⁾, 궁남지(宮南池)²⁹⁾, 충남(忠南) 서산지방(瑞山地方)³⁰⁾, 등으로서 주로 부여·익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부소산성 동문지에서는 4점이 출토되어 전체 토기 중 0.6%를 차지하는 소수기종이다.

이 기종은 사발모양의 몸체에 양측면이 평행으로 절단된 전이 부착되어 있어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종은 역시 한성백제기의 몽촌유형이나 웅진기토기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한강유역 고구려토기인 구의동유형 가운데 이배(耳杯)로 분류된 기형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구의동출토 이배³¹⁾는 모두 3점인데, 모두 굽이 없는 평저이지만, 몸체의 형태나 전이 부착된 기법과 전의 형태 등에서 백제후기 전달린토기와 같은 기종이며, 부여지역 전달린토기의 선행형이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발굴

21) 최종택, 1993, 『구의동-토기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2.

22) 이난영, 1992,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pp.71~97

23) 이한상, 1998.10, 『정지산유적의 편년과 성격』, 공주 정지산 학술발표회 자료.

24) 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앞책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앞책

25) 전영래, 1985, 『五金山城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전라북도

26) 부여문화재연구소, 1995, 1997 앞책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앞책

27) 윤무병, 1985, 앞책, 1994 앞글

28) 신광섭 외, 1993 앞글

29) 신광섭 외, 1993 앞글

30) 백제개발연구원, 1984, 『백제토기도록』

31) 최종택, 1993, 앞글

조사된 한강유역 아차산(峨嵯山) 고구려보루성지(高句麗堡壘城址)³²⁾에서도 이러한 전달린 이배류가 출토되었는데 바닥에 굽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을 부착한 수법, 전의 형태, 크기 등에서 백제후기 전달린토기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달린토기와 관련된 것으로 낙랑(樂浪)의 칠기이배(漆器耳杯)가 있는데 고구려토기이배의 선행형으로 생각된다. 집안(集安)지역 고구려토기의 편년안에 의하면 이러한 이배류는 중기인 4~6세기에 편년된다.³³⁾

한편 전달린토기 가운데는 구연외면과 전사이에 전술한 대부발에서 표시된 것과 같은 수직의 도흔(刀痕)이 그어진 것이 있는데³⁴⁾, 이는 제작과정이 대부발과 거의 같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전을 부착하기 이전에 발형(鉢形)의 몸체를 먼저 완성한 상태에서 뚜껑과 함께 세트라는 의미의 수직표시를 해놓은 것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나 또는 우연히 전을 부착하여 전달린토기로 만들었을 때 나타난 경우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달린토기의 크기는 그다지 큰 제품은 보이지 않았고 일정한 크기의 규격화된 기종만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전술한 대부발보다는 제한된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토기는 백제 사비천도 이후인 6세기후반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여, 익산 등 백제후기의 중앙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접시(도면3)

이 기종은 부소산성 동문지의 경우 모두 4개체분이 확인되어 소량의 비율을 차지하는 기종이다. 역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여 고화도소성하였으며 색조는 회백색이 많다. 제작방법상 굽의 부착이나 몸체의 처리수법에서 전술한 대부발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유관기종으로 보여진다.

이 기종은 몸체의 처리방법상 저부와 거의 수평이 되도록 굽의 바깥으로 몸체높이만큼 짧게 뺀 형식(도면3의 ①)과, 굽이 바깥쪽에서 몸체와 구연부를 짧게 세워올려 완성한 형식(도면3의 ②~④)의 두가지가 보여진다.³⁵⁾ 이 기종은 부여 관북리³⁶⁾에서 대부발, 전달린토기와 함께 일괄로 출토되었다.

이 기종의 시기 또한 백제 사비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강유역의 백제전기토기 가운데 선행기종이 없고 오히려 고구려토기인 구의동유형에서 보이는 평저의 접시와 유사하다. 구의동유형의 접시는 대부분 굽이 달리지 않은 평저이며 주연부에 짧은 몸체가 세워진 형식인데, 이러한 형식에서 굽이 부착된 형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보주모양토기(도면4)

32) 서울대학교발굴조사단, 1998.9, 『아차산보루성지유적발굴조사 중간보고』

33) 耿鐵華·林至德, 1984, 集安高句麗陶器的初步研究, 『文物』 84-1.

34) 백제개발연구원, 1984, 『백제토기도록』

35) 국립부여박물관, 1997, 『국립부여박물관』

36) 윤무병, 1985, 앞책

윤무병, 1994, 앞글

이 기종은 부여(扶餘) 능산리폐사지(陵山里廢寺址)³⁷⁾에서 대체적인 기형을 알 수 있는 상태로 1개체분이 출토되어 처음 알려진 것이다. 이 토기의 정확한 용도는 알기 어렵고 보주모양의 외형에 따라 보주형토기(寶珠形土器)³⁸⁾로 불리고 있다. 이 토기는 상부에 보주모양의 장식과 그 아래로 전이 달린 구형의 몸체와 원통형의 길다란 대각(臺脚)이 이어지는 기형으로서 전의 상하부에는 원형 또는 하트형, 직사각형의 투창(透窓)이 마련되어 있다. 능산리폐사지 출토품에는 현재 상부만이 복원되어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토기가 출토된 지점은 능산리 제3건물지 중앙방이며 금동대향로(金銅大香爐)가 나온 곳과 바로 인접하여 있어서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진 1. 부여능산리 폐사지출토 보주형토기(H.25cm)

사진 1. 부여능산리 폐사지출토 보주형토기(H.25cm)

이 토기는 현재 부여박물관에 의해 하부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전체 모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보주모양토기의 하부로 생각되는 토기편이 부여 동남리유적³⁹⁾에서 출토되어 현재 충남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도면4의 ①, 사진 2)⁴⁰⁾. 동남리출토의 그것은 하부가 넓고 상부가 좁은 원통형의 대각부 위에 구형(球形)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몸체일부가 부착되어 있는데, 일부 남은 편(片)에는 작은 원 2개

37) 신광섭 외, 1993.12, 앞글

38) 국립부여박물관, 1997, 앞책 p77.

39) 충남대박물관, 1993.6, 앞글

40) 충남대박물관 이강승관장님과 정정용선생의 협조로 토기의 사진촬영과 충남대박물관에서 도면을 제공받았다. 이점 감사드린다.

를 연결한 하트모양의 투창이 돌아간다. 그리고 원통형의 대각부 위에서 구형의 몸체로 벌어지는 지점 바로 아래에는 경사진 새김눈이 촘촘히 시문된 돌대(突帶) 2조가 둘러졌다. 그 윗부분이 유실되어 전체모습을 복원하기 어려우나 전술한 부여 능산리폐사지출토 보주형토기의 몸체와 같은 모양으로 추정된다. 이 토기의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암회색을 띠고 있는데 표면에 흑색슬립이 입혀졌다. 또한 능산리 출토품은 전면에 단선문타날이 배풀어져 있다.

이 토기의 형태상 특징은 원형 또는 하트모양의 투창과 독특한 보주모양의 기신부, 그리고 몸체 중간에 둘러진 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상 특징 때문에 보주형의 몸체를 제외한 원통형 대각부나 몸체편만으로 볼 때는 기대(器臺)로 보기 쉬우나 자세히 관찰하면 대각 상부의 모양 및 전과 투창이 마련된 문양, 위치 등에서 기대와는 다른 기종임을 알 수 있다.

이 토기의 기능과 관련하여서 아직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능산리폐사지유적에서의 출토상황을 볼 때 제기(祭器)적 기능을 가진 금동향로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즉, 불교의식(佛敎儀式)이나 제사(祭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¹⁾

그런데 이 토기와 형태상 유사한 것으로 집안지방(集安地方) 출토의 고구려토기 가운데 ‘창(倉)’으로 불리우는 기종이 있다. 이 기종은 보고⁴²⁾에 의하면 고분부장품으로서 지금까지 3점이 확인되었다. 태토는 고운 니질토이며 회색조를 띠고 있다. 그 형태는 전이 달린 투구모양의 몸체에 전아래에는 하트모양의 투창 4조가 둘러졌고, 최상부에는 보주모양의 꼭지가 붙어있으며 하부에는 길다란 원통형의 대각이 붙어 있어서 부여지방의 보주모양토기와 유사하다. 높이는 92cm로 부여지방의 그것보다 다소 큰편이다. 그러나 현재 대각부가 남아 있는 충남대 소장품은 복원된 상태보다 밑부분이 더 이어지고 있으며, 부여박물관에서 복원중인 능산리출토의 대각부 또한 남은 편으로 보아 상당히 긴편이므로 크기는 집안지방의 것과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집안지방에서 출토된 이 토기는 고구려토기편년에 의하면 중기인 4~6세기경으로 편년되고 있다.

41) 이 토기에 대하여 薰爐뚜껑으로 보는 견해(溫玉成, 1998, 「百濟金銅代香爐의 원형에 대하여」, 『백제를 다시본다』 주류성)가 있으나, 보주형 몸체 아래로 현재 복원작업이 진행중인 길다란 원통형대각부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복원결과에 따라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42) 耿鐵華·林至德, 1984, 앞글



사진2. 부여 동남리 출토
추정 보주형 토기

사진 2. 부여 동남리 출토 추정 보주형 토기

집안지방출토의 이 토기의 기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에서는 한대(漢代) 이후로 경제적 재부(財富)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형상화한 기종인 창(倉)⁴³을 무덤에 부장하는 습속이 있다고 하며⁴⁴, 이러한 창(倉)이 고구려와의 교류 등에 의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실용적인 저장용기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기물(器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주형태기로 생각되는 토기편(土器片)이 부소산성⁴⁴과 익산 왕궁리유적⁴⁵에서 출토된 바 있다. 부소산성과 왕궁리유적에서 부여 동남리 출토된 예는 편(片)으로서 회색조이며 표면에 흑색슬립이 입혀진 것도 있다. 현재 남아있는 모습은 횡으로 전이 마련되고 전의 상하로 원형 또는 하트형의 투창이 마련되어 있어 일핏 기대(器臺)로 판단하기 쉬우나 자세히 관찰하면 지금까지 나온 기대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와는 다르다 즉, 부여지방을 중심으로 보여지는 장고형기대류(長鼓形器臺類)와는 다르고 고배형(高杯形) 기대류(器臺類)와도 다르다. 또한 이러한 기형과 유사한 예로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바 있는 원통형기대류를 상정할 수 있으나 전과 투창의 위치와 형태상 차이가 있고, 상호 관련지어 상정할만한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대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보주모양의 토기가 당시에 부여, 익산의 백제중심 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부여·익산지방의 이러한 보주모양토기가 집안지방출토의 토기 '창(倉)'과 같은 기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전술한 대로 외형과 크기, 문양장식 등에서 유사성(類似性)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토기의 성격과 정확한 기능에 대하여 향후 자료의 증가와 더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I. 백제(百濟) 사비기토기(泗泚期土器)의 성격(性格)

지금까지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류 가운데 백제 사비기의 몇가지 특징적인 기종에 대하여 기능, 형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부발(완)·굽달린 접시·전달린토기의 세 기종은 태토나 색조, 제작방법상 서로 관련성이 강하며, 실제 부여 관북리 추정왕궁지의 배수로에서는 이들 기종이 일괄로 다량 출토되었고, 그 분포지역도 부여·익산을 중심으로 한 백제 후기의 유적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백제 사비기에 처음 보이는 기종들은 그 계통상 이전단계인 한강유역의 몽촌유형에서 이어져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고구려토기 계통인 구의동유형⁴⁷에 속하는 기종들에서 그 선행양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백제 후기에 앞선시기부터 이어져오는 고구려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기종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

43) 중국에서 陶倉, 또는 으로 분류되는 이 기종은 후한대 제품에 길다란 원통형의 몸체의 상부에 투구모양의 뚜껑이 덮인 예가 있고, 바닥을 갖추었으며, 상부의 모양은 보주모양이 아닌 다양한 형상을 한 예가 많다. 西晉代의 谷倉은 대개 뚜껑이 있는데 뚜껑 및 倉위에 층층의 누각·불상·인물 및 각종 동물 등이 표현되어 있다

(中國硅酸鹽學會), 1982, 『中國陶磁史』

44) 耿鐵華·林至德, 1984, 앞글

45) 부여문화재연구소, 1995, 앞책, p.466

45) 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앞책, p.2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앞책, pp.410~411

47) 한강유역 고구려토기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이 있다.

박순발, 1989, 앞글/최종택, 1993, 앞책

최종택, 1995, 『한강유역 고구려토기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 하겠다.

이러한 백제사비기에 고구려토기의 영향과 관련하여 551년 성왕대의 한강유역의 점령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한강유역은 고구려가 475년 이후 즉,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경까지 점령하고 있으면서 백제, 신라와의 세력다툼을 계속하고 있었다.⁴⁸⁾ 이러한 시점에 551년 신라와의 연합으로 한강하류지역을 다시 점령한 백제는 구의동이나 아차산 보루성 등에서 확인된 고구려토기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미 구의동유형의 존재에서 확인된 것처럼 5~6세기경에 한강유역에는 백제토기와는 다른 고구려토기가 퍼져 있었고, 여기에 6세기중엽 백제의 한강유역 진출로 고구려토기와 접촉이 이루어져 이후 사비지역에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한편 사비기에 앞선 웅진시기의 토기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최근에 발굴조사된 공주(公州) 금성동(錦城洞) 정지산유적(艇止山遺蹟)이 있다. 이 유적은 웅진기 도성인 공산성과 지근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무령왕릉이 있는 정지산의 북편 금강쪽으로 돌출되어 나온 구릉정상부와 주변경사면으로서, 유적의 중심성격은 백제 웅진기 왕실과 관련한 제사유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유적출토 토기자료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웅진기토기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백제토기 기종구성은 주종을 이루는 개배(蓋杯)·삼족토기(三足土器)·고배(高杯)·기대류(器臺類) 이외에 등잔(燈盞)·단경호(短頸壺)·직구소호(直口小壺)·심발형토기(深鉢形土器) 등이며, 중심시기는 웅진도읍시기인 5세기후반에서 6세기전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종구성은 기본적으로 앞선 한성기의 백제토기 기종구성과 같은 맥락이며 제사에 관련성이 강한 제기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와 함께 공산성이나 정지산유적 등에서 보이는 백제 웅진도읍기의 기종구성에서는 대부분, 전달린토기, 접시 등의 기종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종들은 사비도읍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기종들은 사비천도후 성왕이 한강유역을 재점령한 시기 즉 6세기후반경을 출현시기 상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여 능산리폐사지의 창건연대가 출토 사리감(舍利龕)의 명문에서 위덕왕(威德王)13년 즉, 567년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부분이나 전달린토기의 연대를 위와 같은 맥락에서 6세기후반경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IV. 맺 음 말

본고에서는 백제후기 도성인 부소산성출토의 토기류 가운데 백제 사비기에 출현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특징적인 기종에 대하여 그 형태적 특징과 토기의 성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 보았다.

백제 사비기에 출현한 토기들 가운데 배부발·접시·전달린토기는 모두 회색조의 고운 점토를 사용하여 고화도로 소성한 유관기종들로서, 제작과정에서 물레와 성형틀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규격으로 대량생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토기는 형태상 바닥에 공히 굽이 달렸는데 이는 당시 중국과의 교류에서 들어온 중국자기(中國磁器)나, 청동합(靑銅盒)과 같은 금속용기(金屬容器)의 굽을 모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 토기류는 그 계통상 한성백제기의 몽춘유형으로 대표되는 백제토착기종과

48) 최종택,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제28집,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는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형태적 특징이나 제작수법 등에서 한강유역의 고구려토기종인 구의동유형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구의동유형의 기종가운데 평저완·접시·이배류는 이들 기종과 형태나 제작속성상 연관성이 있으며, 부여지방 사비기토기류 중 양이파수부호나 파수부자배기는 역시 고구려토기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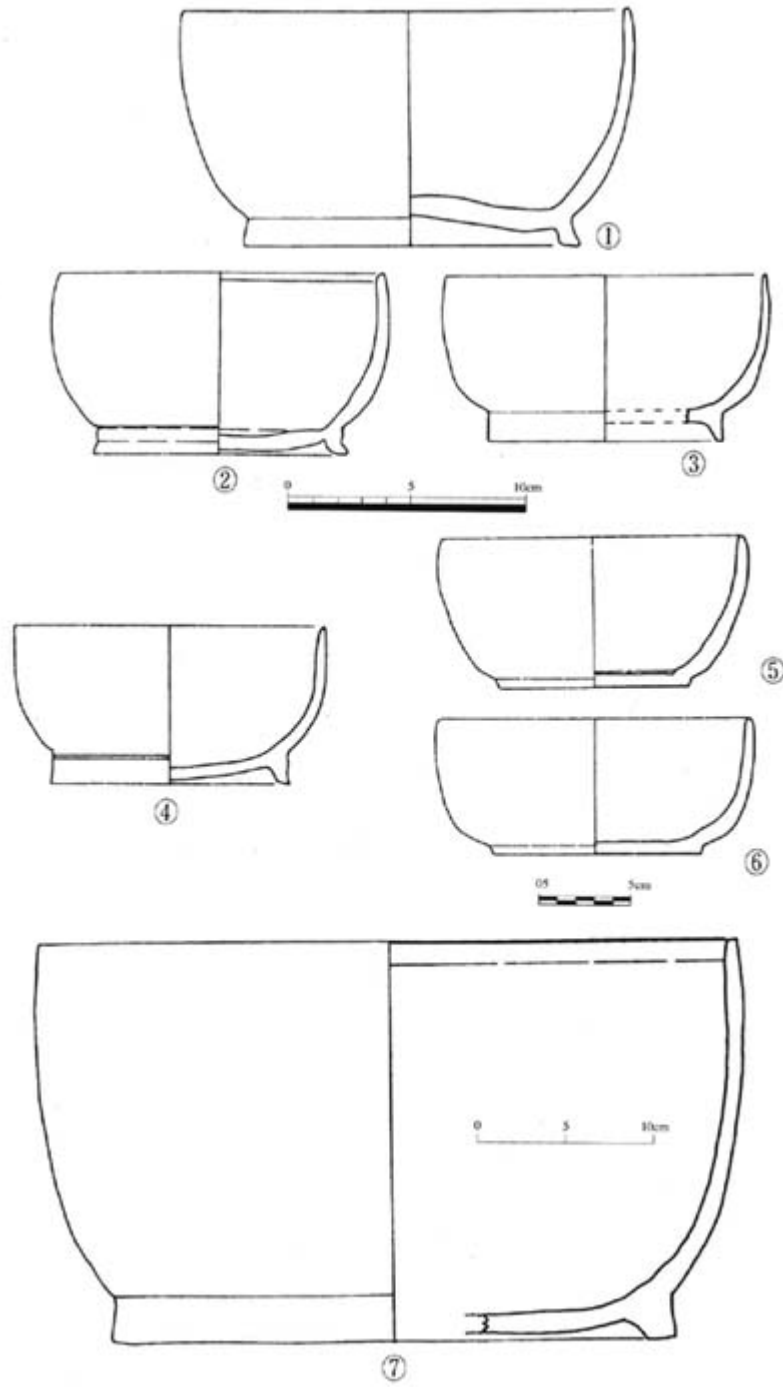
한편 능산리폐사지에서 출토된 보주모양토기는 부여 동남리출토의 대각하부편과 함께 전체 기형을 복원해볼 수 있는데 그 편으로 보이는 것이 부소산성과 왕궁리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토기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집안지방출토의 고구려토기종인 창(倉)이 있는데,

이 토기는 전이 달린 구형의 몸체와 그 하부로 이어지는 원통형의 대각 등 부여지방의 그것과 외형상 유사점이 인정된다. 고구려토기의 창(倉)은 중국 한대(漢代)이후의 창(倉)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성격은 부장용으로서 실용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이러한 백제 사비기 일부기종에 보여지는 고구려토기의 영향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서 551년 백제의 한강하류진출로 인한 한강유역 고구려토기와 접촉을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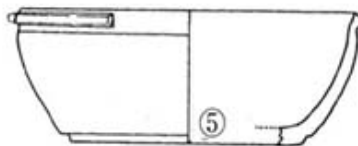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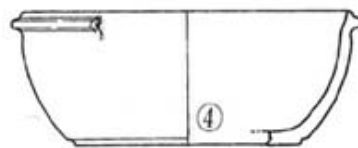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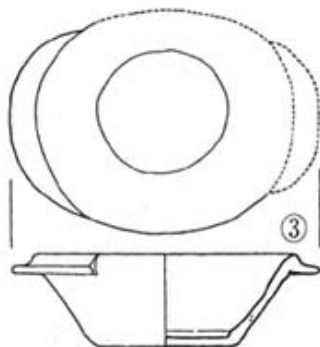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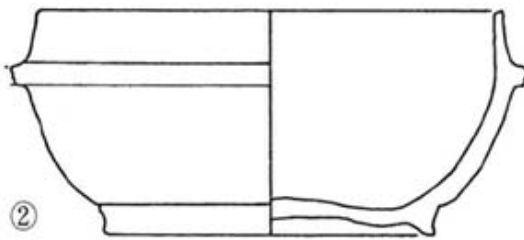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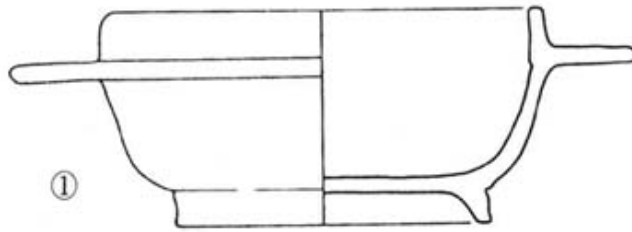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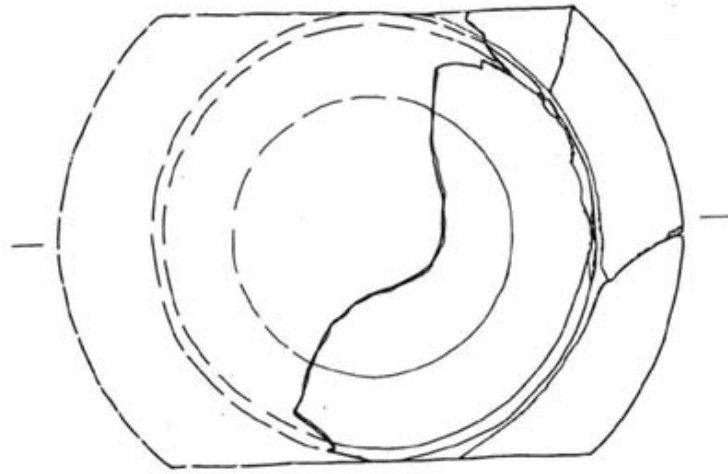
(본고의 내용 중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역측이나 오류가 있으리라 짐작되며, 이러한 점은 차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본고작성시 조언해 주신 충남대학교 박순발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49) 권오영, 1991, 『송국리IV』,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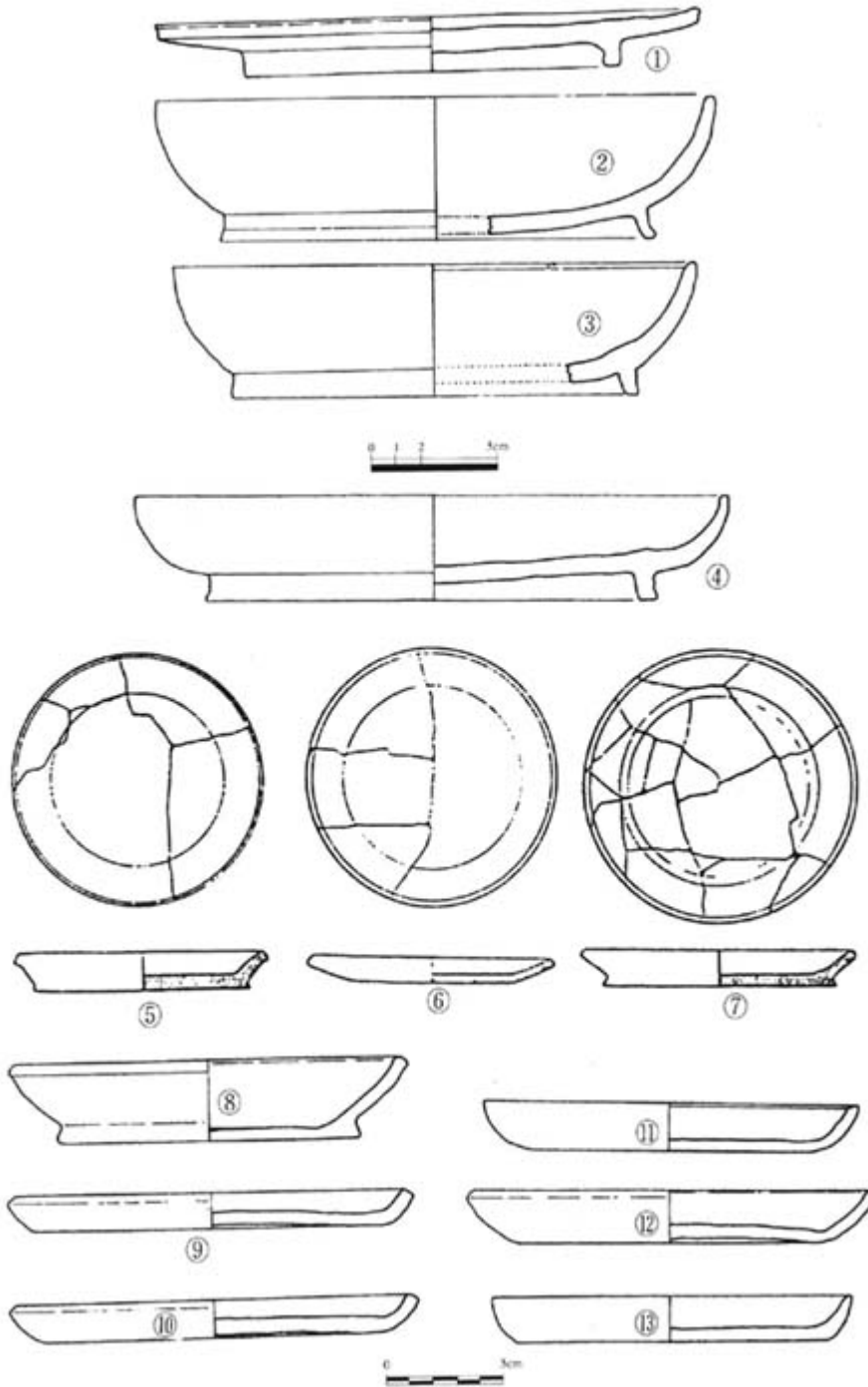
도면 1. 대부발(완)(① ② ③ 부소산성, ④ 왕궁리유적, ⑤ ⑥ 구의동, ⑦ 부여 동남리)

도면 1. 대부발(완)(① ② ③ 부소산성, ④ 왕궁리유적, ⑤ ⑥ 구의동, ⑦ 부여 동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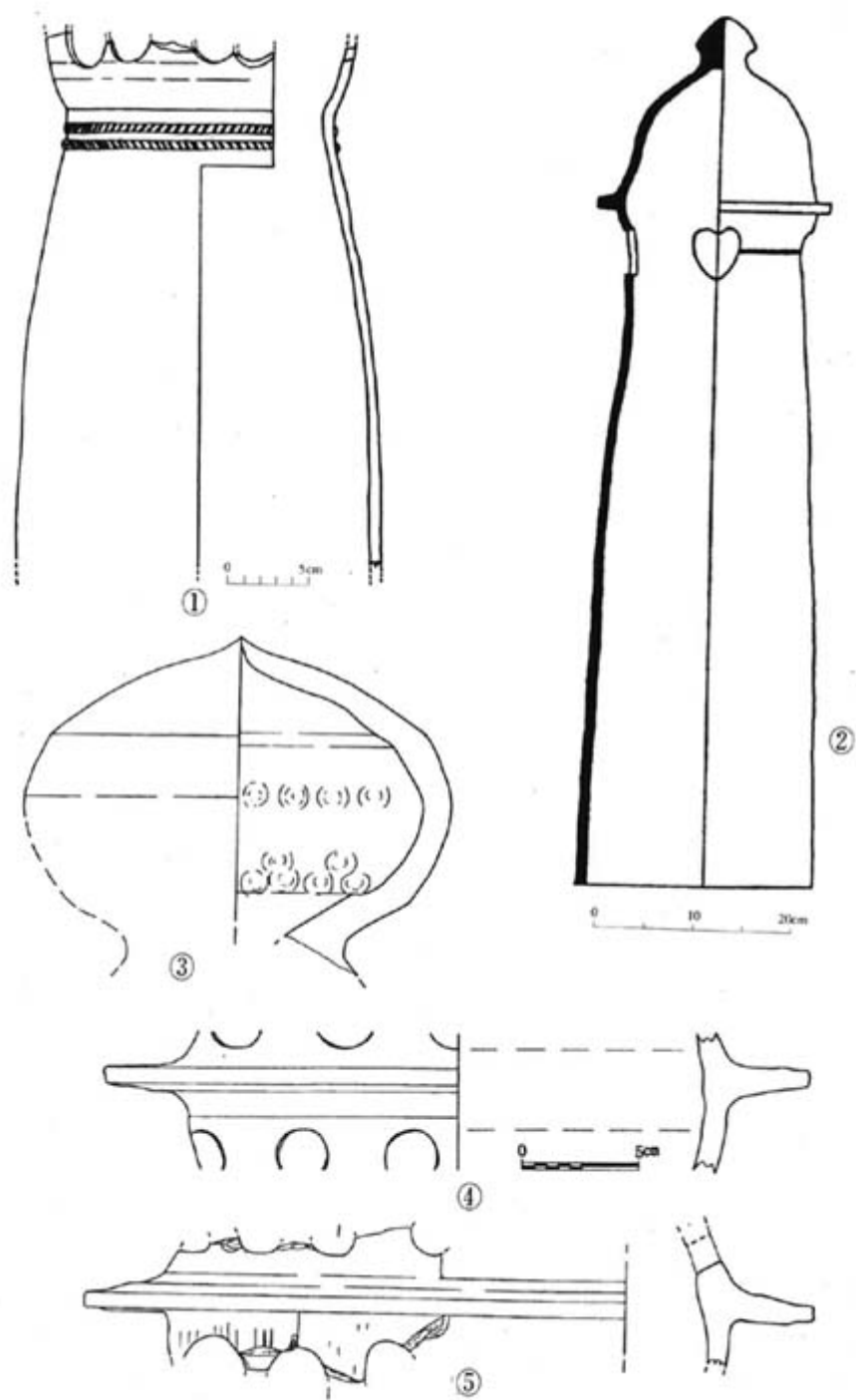
도면 2. 전달린토기(① 왕궁리, ② 부소산성, ③ ④ ⑤ 구의동)

도면 2. 전달린토기(① 왕궁리, ② 부소산성, ③ ④ ⑤ 구의동)



도면 3. 접시(① ② ③ 부소산성, ④ 왕궁리, ⑤ ⑥ ⑦ 안악3호분, ⑧~⑬ 구의동)

도면 3. 접시 (① ② ③ 부소산성, ④ 왕궁리, ⑤ ⑥ ⑦ 안악3호분, ⑧~⑬ 구의동)



도면 4. 보주모양토기(① 부여동남리, ② 禹山下墓區 M2325號, ③~⑤ 왕궁리)

도면 4. 보주모양토기(① 부여동남리, ② 우산하묘구(禹山下墓區) M2325號, ③~⑤ 왕궁리)